그대는 자비보살

이연화 은해사 108순례단장



이연화 은해사 108순례단장은 '연화'라는 이름처럼 "연꽃이 필 무렵 태어나 불자가 될 인연이었다"며 "어디에 있든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연꽃' 같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부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웁니다"

영천=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이른 새벽부터 영천 은해사 일대가 떠들썩하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나서는 은해사 108순례단의 분주한 발걸음 때문이다. 오늘은 또 어떤 도량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도반들과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을까. 꽃분홍색 조끼를 맞춰 입고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버스에 오르는 이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사찰 성지순례는 불자들에게 필수적인 신행 활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된 데다 고령 신도들의 이동 제약, 개인화된 신행 문화 확산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은해사 108순례단은 지역 불자들을 다시금 결집하는 '순례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신행 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순례의 중심에는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2024년 3월부터 은해사 108순례단을 이끄는 이연화 단장이 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도량을 찾아 신심을 북돋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순례단을 발족했다.

"은해사 신도회장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순례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다른 활동들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많은 분이 함께 부처님 도량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랐는데, 교구장 스님께서 흔쾌히 승낙하고 적극 지지해 주셔서 지금의 순례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의 출발은 '단톡방'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들에게 순례 사찰 정보를 공유해 미리 공부하도록 돕고, 버스에 탑승해서는 사찰 기본 예절과 기도법을 안내한다. 사찰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참배하며 기도하고, 순례단이 매번 빼놓지 않는 꽃 공양도 올린다. 꽃 공양에는 늘 '사찰 사부대중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마음을 새긴다.

지난 1년 반 동안 순례단은 구례 화엄사, 남양주 봉선사, 하동 쌍계사, 평창 월정사, 해남 대흥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참배했다.

"순례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사찰을 소개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기왓장 하나에 발원을 담아 보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복을 짓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순례길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순례에 나서기까지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사찰 선정, 차량 배정, 공양 준비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도 박순흠 108순례단 총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버스를 담당하는 팀장들의 도움, 그리고 '누군가를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한다'는 굳은 믿음이 큰 힘이 됐다.

처음 80명으로 출발했던 순례단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550명으로 늘어났다. 영천뿐 아니라 대구, 안동, 밀양 등에서 불자들이 찾아왔고, 연령대도 10세 어린이부터 88세 어르신까지로 다양하다. 부부가 함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불자와 이웃 종교인이 함께, 장애인이 함께 걷고 기도하는 모습은 순례단만의 특별한 풍경이다.

이 단장의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리더십 덕분에 참가자들은 매번 순례에 깊은 만족과 감동을 표했다. 그 경험은 다시 가족과 친구를 순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 합류한 이들 중 불교가 낯선 초심자가 대다수라는 사실이다. 곧 순례단이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불자 인연을 넓혀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단장은 초심자들이 순례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례 중에는 자유시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오신날·개산대재 등 사찰 행사에 초대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08순례단 회향법회'를 열어 함께 108배를 하고, 성실히 참여한 이들에게 개근상을 수여하며 성취감을 북돋웠다.

함께 수행하는 '은해사 108 순례단' 발족
입소문 타고 80명에서 550명으로 확대
덕조 스님, 기도·법문으로 순례단 '버팀목'
순례 만족은 가족·친구 동참으로 이어져
초심자 대다수…자연스레 불자로 정착
은해사 신도회장 등 불교·지역서 활약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이 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뜻처럼,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다가올 수 있어야 불교의 진면목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순례단의 든든한 버팀목은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순례단 버스를 오가며 기도와 법문으로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덕조 스님은 "이연화 단장이 신심과 사명감으로 발 벗고 나서줘, 나 역시 든든한 후원자로 열심히 보조했다"며 "(이 단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신심과 원력, 정성이 모이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활동은 영천 지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덕조 스님은 "순례가 활기를 띠면서 은해사는 물론 지역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 다른 지역 불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이웃 종교인들까지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더욱 넓어졌다"며 "불교의 장점은 배척이 아니라 수용이다. 눈빛과 정성, 예우와 감동은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 점에서 순례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연화 단장에 대해 "불교를 향한 신심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 무엇을 하든 불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모든 것을 부처님 전에 회향하려는 원력이 분명하다"며 "불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맨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모습은 수행자 못지않다"라고 평가했다.

스님의 말처럼 이 단장의 불심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친정과 시댁 모두 불자 집안이었으며, 영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아버지가 은해사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대구에서 지내다 18년 전 고향 영천으로 돌아온 이 단장은 생활이 곧 봉사고, 봉사가 곧 생활이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은해사에 도움이 되고자 제27·28대 신도회장으로 활동했다.

신도회장 재임 기간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그림 대회, 고3 수험생 위로 음악회, 힐링·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신도회 결속과 화합을 다졌고, 말사 신도회까지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맡아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대구법원 민사조정 위원, 결식아동을 돕는 행복한사람들 고문, S(시니어)터링협회 수석부회장, 영천시 걷기협회 고문 등을 맡아 불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게 주어진 일은 부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불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저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건 불자가 아니잖아요."

이 단장은 삶의 중심에는 항상 부처님이 있다. 어려움이 닥쳐도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욕심을 내려놓으려 노력했다. 그러니 모든 일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줄여 줬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염주를 한 알씩 돌리며 하루의 감사함을 되새기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불자로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 집과 사무실 곳곳에 연꽃 작품을 전시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고 있다.

"제 이름이 '연화'인데, 연꽃이 필 무렵 태어났습니다. 불자가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불자가 될 수 있어 감사하고, 부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진흙탕 연못에서도 향기를 피우는 연꽃처럼, 그렇게 연꽃을 닮아가겠습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이연화 단장이 차담을 하는 모습.



올해 7월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된 은해사 108 순례.



올해 3월 마곡사에서 이연화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순천 송광사를 순례했다.